

익산 영등상권... 가을축제 풍성

백제단길 EDM 디제잉 페스티벌 · 다다영등 얼맥페스티벌 등 축제 줄이어

익산 영등상권이 합한 분위기의 페스티벌과 함께 젊은 열기로 가득 채워진다

시는 영등 상권의 주 이용 고객인 젊은 층을 겨냥해 최신 축제 트렌드에 맞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다음 달 2일 영등상권 백제단길 일원에서는 '합합부터 디제잉 까지' 합한 공연 EDM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DI DOC 이하늘의 화려한 디제잉을 비롯해 DJ 비비,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행주 등 실력있는 DJ들과 합합 래퍼의 공연 등 EDM(Electronic Dance Music)파티가 오후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또한 영등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이용가능함을 홍보하기 위해 현장 이

벤트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해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꾀할 예정이다.

이어 8일~9일에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다영등 얼맥페스티벌이 고봉로 32 일원(영등2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펼쳐진다. 이틀간 하이트진로와 협업하여 맥주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공연과 함께 영등상권 일대 매장 음식을 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또 9월 16일과 17일에는 총 270만원의 상금이 걸린 재능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는 청소년&청년 축제 '천년의 꿈 청년의 비상'이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시는 10월까지 고물가·소비위축으로 붐비고 우려에 있는 골목 경제를 되

살리기 위해 영등상권 일대 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 등은 익산 다다영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용선 영등상권 상인회장은 "영등상권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축제를 준비했다"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매주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영등상권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영등상권에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상인과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제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며 지친 일상의 위로도 받고 골목상권엔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군산만의 답례품 · 이색 이벤트'

군산시,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가

군산시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군산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 혜택과 지역별 답례품을 소개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군산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박람회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꽃게장 쌀, 바나나, 울의장아찌, 군산 짬뽕라면 등 군산민의 15종 답례품을 소개했다.

특히,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등 방문객 참여 행

사를 통해 몸소 기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현장에서 기부를 직접 체험하고 제도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를 기부로 응원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며 참여는 온라인(고향사랑이음 접속)과 오프라인(농협은행 방문)으로 가능하다. /군산=김판근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청렴향상 소통활동 강화

정현을 익산시장이 청렴 으뜸 도시 익산시 구현을 위한 청렴 의지 확산에 앞장섰다.

정 시장은 청렴 익산 구현을 위해 계약 및 관리 분야 청렴도 향상과 공사 등 업무 이해관계자와의 청렴 소통 행보를 강화했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문건설 익산시 협의회(회장 박이수)와 함께 청렴 익산! 민·관 청렴 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 리더인 정현을 시장 주도하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건설 익산시 협의회 소속 지역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여해 시 청렴 취약 분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올해 수립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의 청

렴·반부패 시책 안내, 청렴도 취약 분야 개선방안 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청렴 시정 추진을 위한 청렴 의지 표명과 공감대 형성이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감사위원회 주관 공사 등 현장 방문 청렴 상담 시책과 연계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청렴 소통 내실화와 취약 분야 발굴·개선에 주력한다.

한편 시는 청렴 가치 대·내외 확산 및 청렴 개선 의지 공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건설분야 청렴 민·관 상상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등 청렴 시책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사회적경제, 시민과 함께 물들다'

군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 '스머들다' 9월 1일 개최

군산시는 2023년 군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오는 9월 1일 구시청 광장(중앙로 1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시청 광장에서 실시되는 이날 행사는 군산 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치확산을 위해 실시된다.

'스머들다'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오후 3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한마당 기념식,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상식 등

이 실시될 예정이다. 어울마당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매부스 등 30여개가 운영되고, 현장 이벤트 진행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알뜰마당에서는 현장 라이브커머스 진행으로 한마당 참가기업부스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기념식 후 진행될 '사회적경제-예술에 스머들다'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군산지역 내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사회적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연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2023년 군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은 불거리, 즐길거리가 다채롭게 열리는 뜻깊은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군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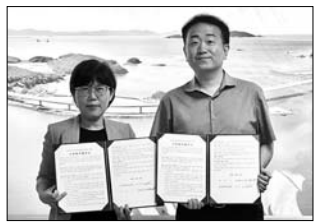
군산시, 전북환경보건센터와 협약 체결

군산시는 지난 25일 전라북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손정우 교수)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유해인자 영향 및 환경성질환 발병 등 빅데이터 분석과 사업활동,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등 관련성 파악을 통한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환경보건센터는 시 환경보건 취약지역 및 대상자 선정, 노출 및 건강모니터링 등을 주관해 추진하고, 또한 결과 공유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주민의 환경보건 인식향상을 위한 환경보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의 네트워킹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제공, 대상자 모집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라북도 환경보건센터는 전라북도 지역의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지원과, 다양한 환경위험에 대비한 주민건강 영향 대



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며 시와 처음으로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매일 캠페인

지역 소식통

익산시, 농업경영 안전장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익산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원예시설 등 포함)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90%(비 90%, 그 외 품목 85%)를 지원하며 농가는 10~15%를 부담한다. 또한 지역농협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협도 있어 지원농가는 25~12%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가입 가능 품목은 벼, 밀, 원예 등 49개 품목이며 품은감 등 임산물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하반기 시민문화강좌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이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9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3개월간 2023년 하반기 시민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시민문화강좌는 성인 대상으로 '제1회 그리기, 내가 바리스타-홈카페' 2개 반과 유아 등 대상으로 '어린이정원사 키즈가드닝' (초등1~2학년), '가족과 함께 하는 동화요리' (유아 6-7세 및 학부모), '창의력속속 과학교실' (초등3~5학년) 3개 반을 운영한다.

시민문화강좌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v.kr>)로 선착순 모집한다. 문화강좌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관진흥계(☎454-5630)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시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자기계발과 사교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평생교육과 여가생활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